

양천공원 책심터

풍경이 흐르는 책마루

김정임
(주)서로아키텍츠 대표

개요

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서관)
대지면적	33,797.9m ²
건축면적	464.55m ²
연면적	464.55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5.2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마감재	와이드 벽돌
내부 마감재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윤구조
책임설계	김정임
설계팀	이상미, 조하연
시공	(주)자안건설(건축), (주)베스트하우스(인테리어)
기계·전기설계	(주)주성이엔지(기계), (주)한길엔지니어링(전기·통신)
조경	동인조경마당
건축주	양천구청



양천공원 책읽터



놀이터의 둥근 선형을 따라 조성된 건축

양천공원 책쉼터는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같은 분위기가 되길 바라며 계획하였다.





©노경, ㈜서로이키틱스 제공



©노경, ㈜서로이키틱스 제공

상·하 공원 속 쉼터

◎노경, ㈜서로이카텍츠 제공



◎노경, ㈜서로이카텍츠 제공



◎노경, ㈜서로이카텍츠 제공



상 외부 잔디밭과 연결되는 내부 공간
 하·좌 감나무실터
 하·우 편안한 분위기의 책실터 내부



©노경, (원)서로이카텍조계공



©노경, (원)서로이카텍조계공

상 곡선을 따라 조성된 내부 통로
하 스텝식 좌석 주변 서가

㉔ 노경, ㈜서로이키텍츠 제공



㉕ 노경, ㈜서로이키텍츠 제공



㉖ 노경, ㈜서로이키텍츠 제공



좌 부지의 경사로 자연스럽게 생긴 레벨
 좌·상 풍경이 펼쳐진 창가
 우·하 나무로 채워진 내부

감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나무그늘 아래
둘러앉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고,
서쪽의 놀이터와 동쪽 잔디밭의 둥근 선형을
그대로 가져와 집을 앉혔다.
먼저 있었던 존재들 사이를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가
집이 앉은 모양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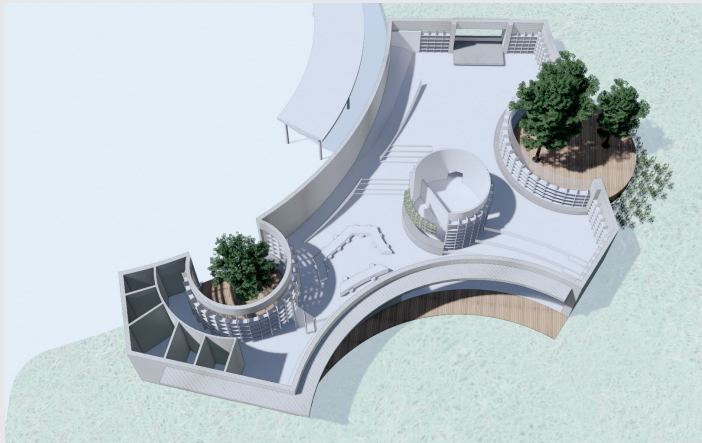
© 노경, 원서, 토키, 테크, 제단

자연스러운 자리에 앉다

처음 해야 할 일은 공원 안에 집을 앉힐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야외 공연장 무대 구조물을 개조하여 어린이놀이터로 만든 장소 옆에 자리를 잡아 비슷한 기능을 묶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싶었다. 집을 앉힐 터에는 듽성듬성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수형이 예쁜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나무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전부터 그곳에 있어 온 것들의 존재를 다 수용하며 집을 앉히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감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나무그늘 아래 둘러앉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고, 서쪽의 놀이터와 동쪽 잔디밭의 동근 선형을 그대로 가져와 집을 앉혔다. 먼저 있었던 존재들 사이를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가 집을 앉은 모양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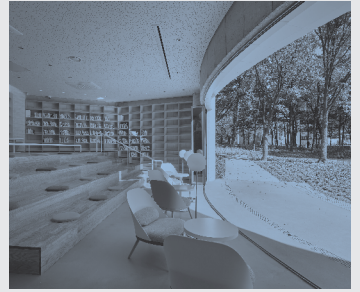
다양한 풍경이 흐르는

부지에 있던 1.2m 정도의 레벨 차이는 내부에서 그대로 경사로로 연결하여 아래 레벨은 카페와 어우러져 차 한잔 하면서 책 읽는 공간으로, 위 레벨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를 두어 조용하고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또한 레벨 차를 이용해 몇 단의 스텝식 좌석을 만들었는데, 그 앞쪽의 잔디밭을 향한 외벽은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계절 좋은 날에는 열어서 작은 음악회나 영화상영 등 공원과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소메트릭

©모경·원시몬이키테 건축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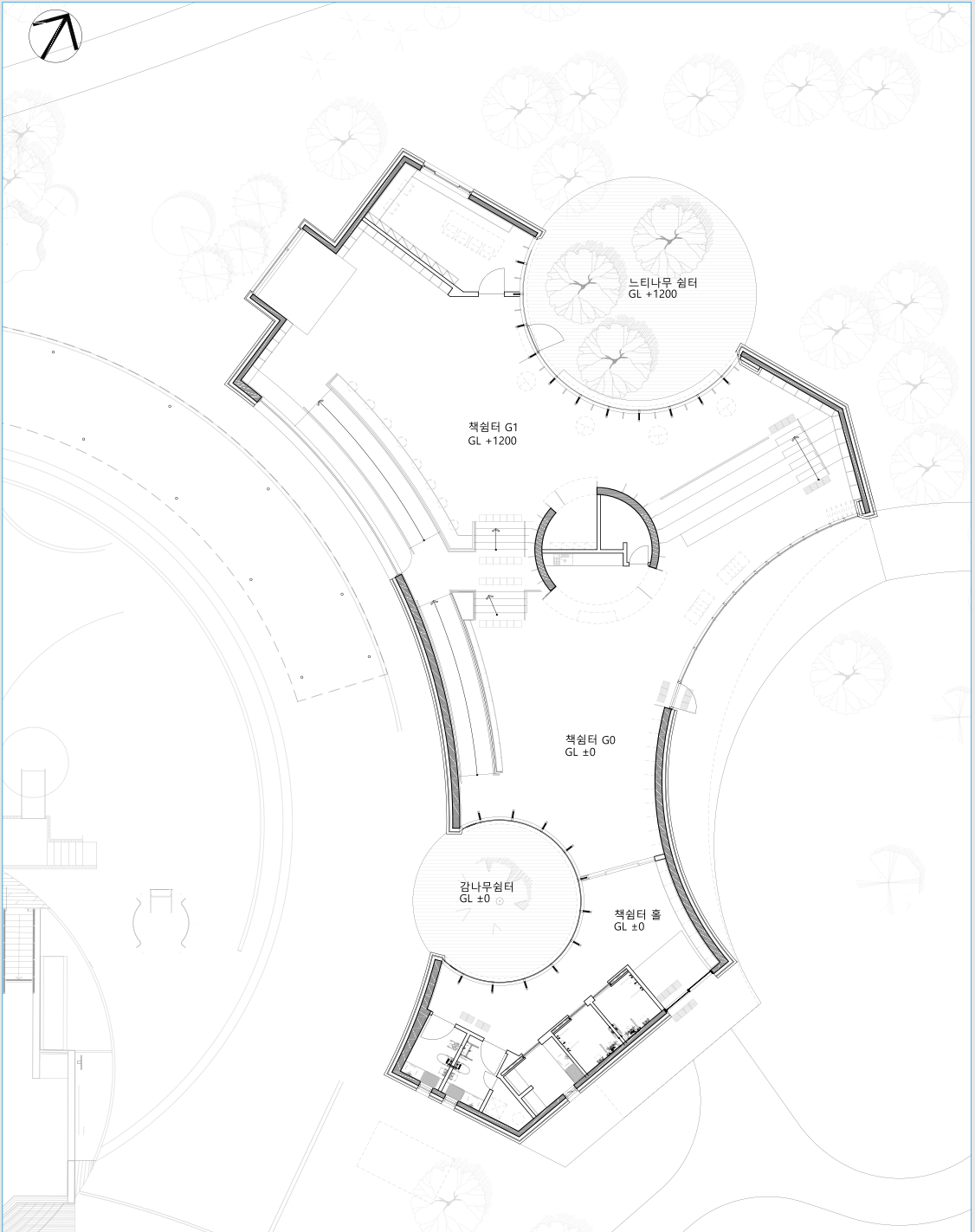
상 공원 속 책심터
하 외부 잔디밭과 연결되는 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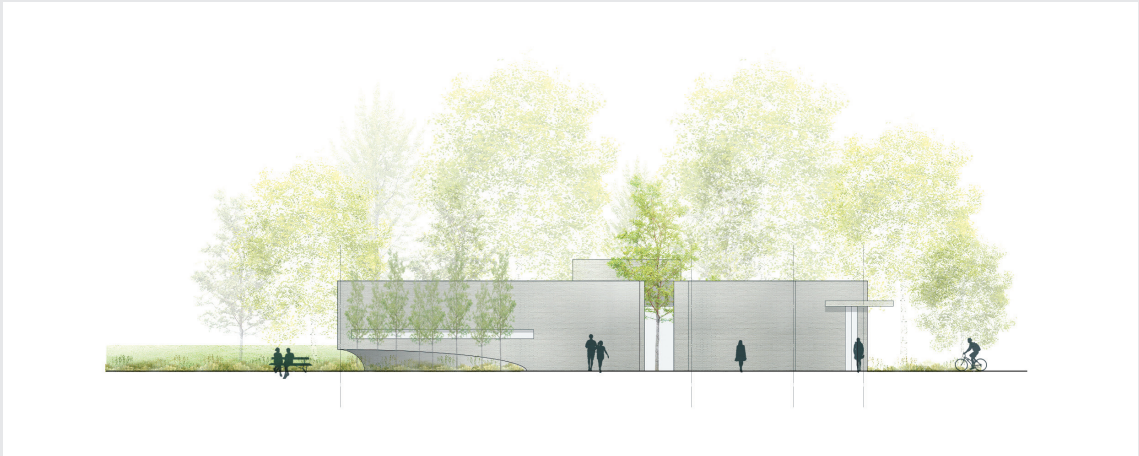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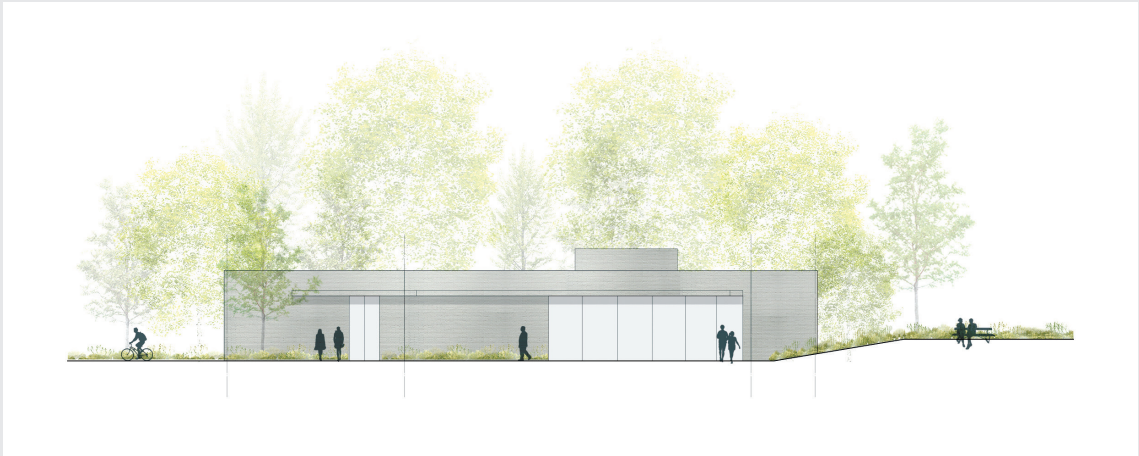
콘셉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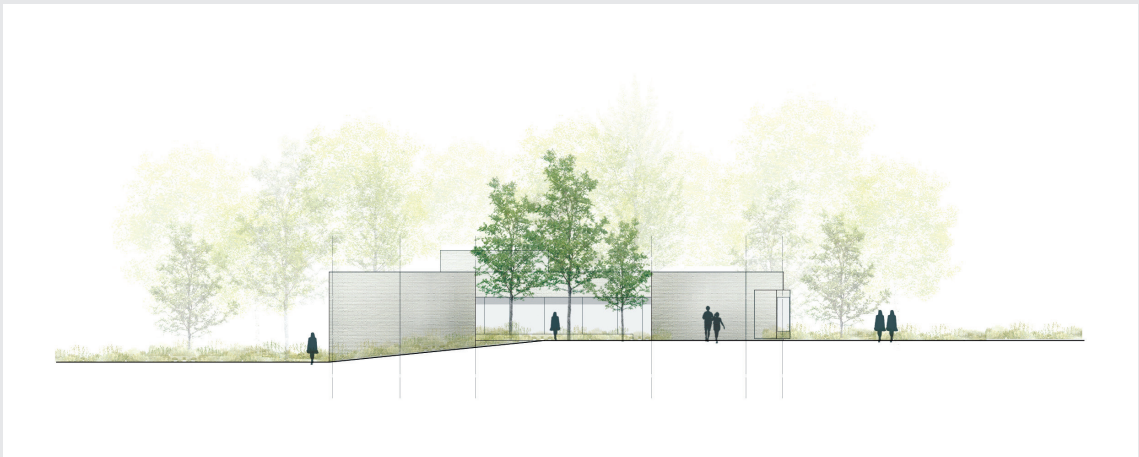
평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도서관을 설계할 때 예전에는 서재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거실 같은 분위기의 공간으로 만드는 추세이다. 양천공원 책쉼터도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같은 분위기가 되길 바라며 계획하였다.

늘 공원 속에 있던 것처럼

공간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구조부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중앙의 커피스탠드와 원형 보이드를 이용하였다. 커피스탠드는 지붕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고, 두 개의 원형 보이드 경계에는 책장과 결합된 스틸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처짐을 받게 하였다. 약 460m² 규모의 단층 건물은 녹음이 우거졌을 때나 잎을 떨근 후 짙은 색의 나뭇가지들이 돋보일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아이보리색 벽돌로 마감하였다. 놀이터와 책쉼터 사이에는 두께 9mm 철관을 가느다란 원형 기둥으로 받친 간결한 형태의 캐노피를 만들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온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공간을 두었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엮여서 하나의 장소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사용풍경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일상 속 쉼터

공원과 도서관은 참 잘 어울린다. 개관 후 거기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과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생각해 보니 곳은날 건물 안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장을 넘기며 공원을 바라보는 기분이 꽤 괜찮을 것 같다.

서울시에서는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 안에 쉼터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SOC사업이고 공간복지를 구현하는 일인데,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동네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건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물론 이를 설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건축가에게도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

©보경 (주)서토이키텍츠 제단



상 편안한 분위기의 책쉼터 내부
중 부지의 경사로 자연스럽게 생긴 레벨
하 책쉼터와 놀이터 사이 그늘공간